

‘방치된 빈집’ 예술가 손끝으로 되살려요

‘빈집에(愛) 프로젝트’를 아세요.

방치된 빈집을 예술가의 손끝을 통해 창작 실험 실로 되살려 도시의 비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기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마련된 ‘빈집에(愛) 프로젝트’가 한창 실험 중이다.

빈집에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시 주최, 사회재기업 살림 주관으로 진행 중인 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인 ‘공동1987’ 속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비어 있는 공간,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은 예술의거리에 머물며 작업을 펼쳐온 최재영 작가(동구예술작가회 회장)가 맡았다.

최재영 작가는 빈 공간이 많아 예술이 개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 제안을 받아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일반 전시 개념을 탈피해 작가들이 계속 머무르며 실험할 수 있는 대안적 유휴 공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실험과 빈집을 예술적으로 재활동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빈집에 프로젝트는 빈집을 전시장, 체험실, 창작실, 영상관 등으로 변모시키며, 그 변화를 시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빈집의 본래 구조와 질감을 살리면서도, 그 안에 예술적 실험과 감각을 더해 공동의 빈 공간을 새로운 창작 플랫폼이자 커뮤니티 예술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 달 동안,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빈집 창작 실험실이라는 예술적 상상에서 출발, 한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펼쳐지는 한시적 프로젝트 성격이며,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등 살아 있는 예술의 장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빈 공간이 사라졌지만 젊은 친구들과 함께 도색

■ 예술의거리서 ‘빈집에 프로젝트’

최재영 동구예술작가회장 기획
매주 토 오후에 옛 광주액자서

‘반려동물’ 등 4회 진행 중
빈 공간 재활동 새 전환점

지난 14일 두번째 순서로 진행된 ‘나만의 의상실’ 전경과 ‘나만의 의상실’ 모습.

을 하면서 구멍 난 곳을 나무로 막았다. 그러면서 빈집 특유의 느낌을 살리는데 주력했고, 옛날 아날로그 감성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먼저 주제를 정했고, 거기에 걸맞는 작가들을 섭외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재미가 있는 주제를 고민했다고 한다.

지난 7일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길 12 옛 광주액자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뉴메릴리 ‘반려동물 그리기’가 마련된다. 초대작가로는 전현숙·김영화씨다. 반려동물 그림 그리기 체험 중심으로 사진 또는 실물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 28일에는 예술체험 ‘소장품’이라는 타이틀로 초대작가 김춘미·이선하씨에 의해 손수건 염색과 예코백 제작 등 환경과 예술을 잇는 공예 체험

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선보였던 작품 등이 조금씩 한자리에 모두 모일 예정으로 성과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첫번째 순서였던 지난 7일에는 움직임이 예술 ‘모빌의 방’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도운·조대원 작가를 초청해 나비 모빌 만들기 체험을 실시한다. 일부 작품은 전시 또는 판매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유일하게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나만의 의상실’이라는 주제로 김서아·박예민씨가 자신들이 손수 만든 의상 등을 전시했다. 옷을 주제로 한데는 의상이 개인의 문화이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기부한 의상 등을 일부 판매했

다. 개인 기억과 스타일을 공유하는 공간을 목표로 해 이뤄졌다.

최재영 작가는 “빈집은 이제 단순히 리모델링되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실험의 장이다. 예술의 거리에서 감각적이고 새로운 예술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실험할 수 있는 대안적 유휴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제4회 GB 작가탐방’에 김신윤주씨
(재)광주비엔날레, 내일 뽕뽕브릿지

(재)광주비엔날레가 네 번째 ‘GB 작가탐방’을 진행한다.

주인공은 김신윤주 작가이며, 탐방은 18일 오후 4시 뽕뽕브릿지(광주 서구 월산로268번길 14-36)에서 이뤄진다.

201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레회’의 하나인 ‘GB 작가탐방’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과 시민이 직접 만나 예술 세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GB 작가탐방’ 네 번째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참여자와 함께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시각 화해 주목 받아온 김신윤주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한다.

뉴욕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는 기후정의, 탈성장,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주제로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둔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생태적 전환과 생명 감수성에 관심을 갖고 작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김신윤주 작가의 대표 프로젝트인 ‘원 하트 프로젝트’(One Heart Project)는 참여자 각자의 마음을 표현한 천 조각을 하나로 이어 붙여 커다란 조각보로 연결하고 이를 기념비 형태로 설치하는 공공 예술 작업이다.

작가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기념비적 설치 작품은 참여자 개인이 자신의 조각이 타인의 조각과 ‘연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사건으로서의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

작가는 ‘원 하트 프로젝트’(One Heart Project)로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론, 2022년 통영국제트리엔날레, 2017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데레이터 김성우 큐레이터(예술 공간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Primary Practice)의 진행으로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전환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 정보와 신청은 링크(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7UC95Ab2J9yG9tZd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74.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김신윤주 작 ‘One Heart Genuine 기념비’

다형 김현승 ‘문학정신’ 신인 발굴로 잇는다

광주예총 ‘3회 김현승 시문학제’ 오늘 남구문화회관
‘시문학상’ 이근배 시인 선정…‘2회 신인예술상’ 시상

광주가 낳은 위대한 시인 다형 김현승(1913~1975)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지역 예술계를 이끌 신인 예술인들을 격려하는 ‘제3회 김현승 시(詩)문학제 신인예술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3시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광주예총(이하 광주예총, 회장 임원식)과 다형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3회 김현승 시(詩)문학제 신인예술상 시상식’ 등으로 이뤄진다. ‘김현승 시문학제’는 김현승 시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정됐으며, 라인문화재단



이근배 시인



2024년 ‘제2회 김현승 시문학제’와 ‘제1회 신인예술상’ 수상자들의 단체 기념사진.

의 지원으로 상금 3000만원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선 이근배 시인이 선정됐다.

이근배 시인은 194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김동리, 서정주 선생을 사사했으며, 196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묘비명’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벼’와 조선일보 신

춘문에 시조 ‘압록강’이 당선되며 정식 등단했다. 현대불교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이철주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한국시조대상, 심훈문학대상,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백수민 심사위원장은 “수상작 ‘벼루를 닦으며’에서 드러난 이근배 시인의 겸허한 자세, 시조 형식을 통한 고도의 언어 정제, 그리고 시대

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은 ‘김현승 시문학상’의 제정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문화 예술의 미래를 이끌 역량 있는 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제2회 신인예술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9개 협회의 회원 9인(광주전남건축학회 정영범·광주문인협회 김수하·광주국악협회 함승우·광주미술협회 윤성민·광주무용협회 노윤정·광주사진작가협회 황진영·광주연극협회 이슬·광주음악협회 나유빈·광주연예인협회 위명선)과 비회원 9인(건축 최정미·문학 고현경·국악 김주영·미술 김나영·무용 강은혜·사진 최정우·연극 정성현·음악 윤주승·연예 한진희)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에게는 회원 예술인에 각 500만원, 비회원 예술인에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